

# 민주 대 평화 대결... '군수 무덤' 오명 씻나

## ■해남군수 후보

6·13 격전지를 가다

### ■해남군수

이길운, 군예산 1조 시대 공언  
명현관, 도의장 경륜 앞세워  
무소속 이정우 농어촌수당 도입

"임기 채워달라." 해남 유권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에 화답하듯 해남군수 후보들도 '깨끗한 군정'을 제1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3명의 군수가 인사청탁과 공사편의 등의 댓가로 금품을 받아 연달아 낙하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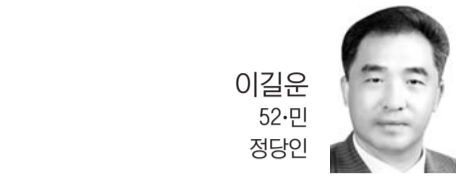
해남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김영범(46)씨는 "3명의 군수가 불명에 퇴진하면서 군정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군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겼고, 지역발전은 후퇴했다. 청렴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군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씨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절대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군정, 군민을 소통으로 섬기는 군수가 나와서 해남을 바꿔야 한다"고 바랐다.

해남청년회의소 오성원(39) 회장은 "해남은 전남 제1 옹군(雄郡·웅대한 군)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자체들은 경제·관광 활성화로 뛰고 있는데, 해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군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수 선거는 3파전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길운(52) 후보와 민주평화당 명현관(55) 후보가 2강을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무소속 이정우(58)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후보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표발을 찾아 분주히 뛰고 있다. 새벽 5시부터 밤



이길운 52·민정당인



명현관 55·평정당인



이정우 58·무소속농어촌수당

재산	10억2135만원	63억7822만원	1억2295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필	병역필
세금	6867만원	4625만원	4779만원
전과	전과 1건	전과 없음	전과 1건
학력	조선대 경영학석사	호남대 체육학석사	목포대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주요 공약	·해남 민주주의 완성 ·도시재생으로 문화·경제 활성화 ·신 경제지대로 농수산 경쟁력 제고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 ·농어민 소득증대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	·소통·투명 행정 실현 ·농어촌 가치수당 월 20만원 지급 ·해남형 주민참여자치제 도입

11시까지 강행군이다.

민주당 이길운 후보는 "해남을 해남답게 만들 적임자"라며 "힘있는 여당, 힘있는 군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전략은 '문제인 마케팅'이다. 강력한 여당 군수의 힘만이, 해남을 특성화·차별화해 다른 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해남은 문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으로,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해남을 찾았다"면서 "대통령이 사랑하는 해남을, 해남답게 만들 후보를 뽑아, 해남발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해남을 방문한 송영길·신경민 국회의원과 함께 유세를 펼쳤다. 그는 "문제인 정부 내 해남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린다"며 "이 예산을 군민과 함께 쓰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참여를 통해 해남민주주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군민요구에 응답하는 '군민청원관'을 개설하고, 군민 갈등·행정오류 해소 등을 위한 공익조사위원회 설치, 중요정책 군민투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또 '읍면행정지원단'을 설치해 인사·예산 집행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

상과 전남의 농수산생명벨트 사업은 해남 경제를 일으킬 쌍끌이"라며 농가수당 도입, 지역화폐 발행, 지역경제 순순한 체계 구축, 서남부 물류거점지로서의 종합유류단지 조성, 북한에 땅굴 환토구마·땅갈비 재배단지 조성, 문화관광진흥재단 설립, 야구장 등 제2체육공원 조성, 창업·문화·에코아트 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다.

평화당 명현관 후보도 이날 자인방식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명 후보는 남부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인 남장5일장을 찾아 박성재 전남도의원 후보와 김석순·전체재 해남군의원 후보 등과 합동 유세를 벌였다.

해남 출신 최초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명 후보는 "해남 이대로는 안된다. 도의회 의장의 경륜과 능력을 군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오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공정·공개 행정 3대 원칙을 지키면 비리·부정 없는 깨끗한 해남군이 된다"며 "해남 군민과 공직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명 후보는 또 "해남군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다"면서 "사업가 출신으로 해남을 마케팅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해남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해남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기업투자유치 확대, 농산물 대표축제 개발, 농가기본소득(상품권 지급) 도입 등 CEO형 군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작은영화관 및 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빛의 숲 조성, 울돌목 충무공 성역화 사업, 세계관광 박물관 등 체류형 문화관광 사업과 농어촌 버스 도우미 도입, 노인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유치원·초·중·고교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등 복지대책도 내놔다.

무소속 이정우 후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군민들에게 제출하는 등 타 후보들과 다르게 정직·청렴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군수직을 1층 민원실로 축소·이전해 군민과 사·공간적 거리를 줄이고 군민과 자주 접하며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가치수당 월 20만원 이상 지급, 해남형 주민참여자치제·주민참여투표제 도입, 청소년자립센터와 청년다짐센터 설립, 두륜산·땅갈·우수영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이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민간공원 첫 주민설명회부터 시끌

### "마복공원 개발 축소 요구"에 우선협상자 답변 피해

광주시가 지난 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인 마복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주들은 토지 수용 가격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으며, 시민단체는 마복공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원 조성비를 낮춰 아파트 개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우선협상자는 공원 매입비, 조성비, 비공원시설(아파트) 투입비, 사업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설명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복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베르디온콘소시엄(이하 호반콘소시엄)이 주민설명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마복공원의 면적은 22만6150㎡로, 이 가운데 공원은 16만1497㎡, 비공원시설(아파트)은 6만4653㎡(28.59%)이다. 호반콘소시엄 측은 공원에 마복문화센터, 빛고을 정원 등을 매입해 조성하고, 19~21층 규모의 아파트 1272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빛고을정원은 동락원, 휴락원, 감락원 등으로 구성해 생태연못, 조각공원, 작은공연장, 전망대, 황토건강길, 생태모험놀이터, 숲 어드벤처 체험장, 드론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원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을 계획하면서 아파트 개발 면적, 규모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했다.

또 공원 내에 들어설 마복문화센터, 빛고을 정원 등에 운영비가 들 수밖에 없어 향후 주민, 광주시 등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토지소유주는 "일부 사업자들이 토

## ■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회 일정

5일 수랑공원	오후 3시 시 지방공무원교육원
8일 송암공원	오후 3시 남구청 대회의실
12일 봉산공원	오후 2시 남부대 산학관

지를 이미 매수하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높이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호반콘소시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안서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피해했다.

시는 1일 마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오후 3시 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 8일 송암공원(오후 3시 남구청 대회의실), 12일 봉산공원(오후 2시 남부대 산학관 세미나실)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시는 이달 내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협상을 거쳐 7월 제안사업 수용여부 결정, 도시관리 및 공원 조성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등을 마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9년 6월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19년 10월 실시설계 확인 및 사업시행, 보상절차 진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마복·수랑공원의 경우 차순위업체들이 '제안서 내용이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된다'며 시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사업협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송암공원은 토지소유주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의 교육부지(교지)가 포함돼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고온 해파리 대책 마련 '비상'

폭염 등 갑작스런 고온으로 전남 해역에 산소부족 증세가 보이고, 해파리 출현도 늘 것으로 예측돼 양식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시 가막만 해역에서 빈산소 수괴(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가 발생했다.

빈산소 수괴는 바닷물의 산소농도가 줄어 3mg/l 이하인 물덩어리를 일컫는다. 물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표층의 수온이 높고 저층의 수온이 낮은 여름철 고수온기에 발생한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용존산소 부족으로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식밀도를 줄이고 먹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

가막만에서는 빈산소 수괴가 매년 초

여름에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6월 말 처음 발생했다. 올해는 이보다 20일 빠른 6월 초에 발생함에 따라 인근 진주담치 양식장의 체묘시기와 겹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연안 수온이 평년(14.9~18.2℃)보다 0.3~0.9℃가 높아 해파리 출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업어선과 양식장 피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6억3000만원을 확보, 해파리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긴급 배정해 신속하게 제거작업을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여수시 등 15개 시·군의 어선 151척, 절단망 124개, 분쇄기 9대 등 점검을 마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이길운 후보는 지난 2일 송영길·신경민 국회의원과 함께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평화당 명현관 후보는 해남읍장에서 상인과 대화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다.

#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 "전체"수리 했습니다

